양촌선생 "주역천견록" 해제

이 광 호 (연세大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

시설(施設)

13

혹자가 이르기를 "<하광>이 송나라와 관련해서 지은 시이기는 하지만 이미 시집온 이상 송나라와는 관계가 끊어졌으니, 그 시를 송나라에 붙일 수 없다. 또 하물며 송나라와 허 나라는 '풍'이 었음에랴. 그러므로 <하광>과 <재치>를 모두 위나라에 붙었다. <천수>와 <죽간>의 여인도 분명'풍'이 없는 나라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럴 듯하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지어진 것이 위나라의 일과 관련되었다할지라도, 위나라에서 어찌 이를 알고 채록할 수 있었겠는가? 이는 반드시 허목공(許穆公)의 부인과 <천수>와 <죽간>의 여인이 고국에 돌아가 문안을 올릴 것을 생각하지만 그럴 수가 없자 대부를 시켜서 그들의 형제에게 안부를 물을 때 이들 시를 지어 위나라에 부쳐서 자실의 뜻을 전달한 것일뿐이다. 그러므로 위나라 사람들이 이를 얻어서 채록하여 천자에게 올린 것이다. 훗날 먼 데 있는 사람에게 시를 지어서 부치는 그 근원이 아마도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리라. 제 나라 여인이 위나라에 시집을 오니, 그 시가 본래 위나라의 일을 읊고 있다.

위나라 여인이 시집을 가서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지은 시도 모두 위나라와 관련되어 있다. 다만 <하광>은 위나라와 관련해서 지은 것은 아니지만, 또한 위나라 여인이 예의를 알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모두 「위풍(衛風)」에 두어 위나라 풍속이 음탕하고 편벽된 나머지에도 왕도정치의 교화가 아직 남아 있음과 도덕적 의식이 아주 없어지지 않았음을 보여 주어 후세 사람들을 위해 권고한 것이다.

14

<서리>는 제1장에선 '기장의 싹'을 말하였고, 제2장에선 '기장의 이삭'을 말하였고, 끝으로 제3장에선 '기장의 열매'를 말하였다. 징용당하여 부역 나가 때를 넘기니 기장 밭으로 변한 옛 도읍지 호경(鎬京)의 종묘와 궁실을 한 번 본 것이 아니다. 「주남(周南)」의 <도요(桃夭)> 제1장에선 그 꽃을 말하였고, 제2장에선 그 열매를 말하였고, 끝으로 제3장에선 그 잎사귀를 말하였으니, 그 뜻이 또한 이와 같은 것이겠는가?

부역하러 오가면서 한 번 본 것이 아님이 확실하다. 그러나 예컨대 혼인

을 맺은 것은 바로 복숭아가 꽃이 피는 계절이다. 그 꽃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 열매가 장차 무성하리라는 것을 안 것은, 마치 아가씨가 시집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반드시 그 집안을 화목하게 할 수 있을 것을 아는 것과 같다. 그러니 그 뜻은 저절로 같지 않다. 다만 제1장에선 그 꽃만을 말한 것은, 보이는 것을 나타내어 아가씨의 어짊을 흥기시킨 것이다. 다음 제2장에선 그 열매를 언급함으로써 자손이 장차 번성하리라는 것을 흥기시킨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집안을 화목하게 하는 일일 따름이다. 그리고 끝으로 제3장에선 잎사귀를 말함으로써 한 집안 사람들을 흥기시켜, 위와 아래작고 큰 것을 모두 들었다. 집안을 화목하게 하는 일이 남김없이 완전히 구비되었으니, 말의 앞뒤가 또한 순서가 있다.

15

「위풍(衛風)」의 <기욱>과 「정풍(鄭風)」)의 <치의(緇衣)>는 모두 자기네 나라 임금이 천자의 조정에서 경사(卿士) 벼슬을 하며 그 직책을 잘 수행한일을 읊은 시들이다.

지금 그 가사를 살펴보면, <기욱> 3장은 제1장에선 학문을 하고 자신을 수양하여 그 도리를 다함을 말하고, 다음 제2장에선 위엄스런 자태와 의복 및 장식이 그 덕에 걸맞음을 말하고, 마지막 제3장에선 그 덕이 갖추어졌음과 그 직책에 걸맞음을 극진히 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치의> 3장은 다만 그 의복의 걸맞음과 사랑하고 좋아하는 뜻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예기」에서는 <치의>를 어진 사람을 좋아함의 지극함이라 함은 어째서인가?

<기욱>은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덕을 잘 말하였고, <치의>는 나에게 있는 성실함을 다한 것이다. 이것이 <치의>가 지극함이 되는 까닭이다. 다른 시를 가지고 이를 살펴보자. 사람이 물건을 보내어 은근한 뜻을 맺으니, 작은 것으론 여러 가지 노리개와 아름다운 옥 따위가 있고 큰 것으론 폐백과 수레나 말 따위가 있다. 그런데 예컨대 저 의복이나 음식은 집안사람인 아버지와 아들 및 남편과 부인과 같이 지극히 가까운 사람들이 보내는 것이다.

지금 「정풍(鄭風)」의 <치의>에서 "그대의 관사에 간다"고 한 것을 보면 집안사람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집안사람으로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서 "옷이 떨어지면 내가 다시 지어 드리고, 그대의 관사에 가서 그대가 공무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내가 음식을 드리러"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친애하여 마지않는 성실함으로 마치 집안사람이나 아버지와 아들처럼 자연적으로 우러나온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다만 여러 가지 노리개나 폐백 따위를 주는 사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또 하물며 물건을 줄 때 의리로써 하지 않는다면 "사사로이 은혜를 베풀기만 하고 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군자는 스스로 머물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치의>의 마땅함을 가지고 말한다면 그 덕이 걸맞아 사사로운 은혜가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의리에 합당하여 그 성심을 다하였으니, 어찌 어짊을 좋아함의 극치가 아니겠는가?

(다음호에 계속)

특별기고 〈28회〉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橃)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지난 호에 이어)

한 것은 "중용"의 말입니다. 마음이 방일(放逸)하지 않고 대본이 확립된다면 공도는 시행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충재 선생의 아뢴 말은 주공이 성왕을 위해 "서경" '주서周書' 무일(無逸)편에서 말한 것과 통한다. 아마도 충재 선생이 중종 말년과 인종의 갑작스런 승하 및 어린 명종의 등극과 문정왕후의 수렴청정, 대·소윤과 훈척·사림파의 갈등으로 인하여 미구에 을사(乙巳;1545년 8월)·정미사화(丁未士禍;1547년 9월)의 피바람을 예견하고, 경연에서 인사문제와 숙정(肅正)에서 조정대신과 민심 모두의 공론을 따라야 함을 역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명종 즉위년(1545년) 8월 22일 기사에 사신(史臣)이 논하기를 "정유년(丁酉年;1537년) 이후부터 조정 신하들 사이에는 대윤(大尹)·소윤(小尹)의 설이 있었는데 일을 좋아하는 군소배들이 부회(附會)하여 말이 많았다. 이기·임백령·정순붕·최보한의 무리들은 윤원형 형제와 은밀히 결탁하였다.

인묘(仁廟:인종)가 승하한 뒤에 윤원형이 기회를 얻었음을 기뻐하여 비밀리에 보복할 생각을 품고 위험한 말을 꾸며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하니 소문이 위에까지 들리고 자전은 밀지(密旨)를 윤원형에게 내렸다.

이에 이기·임백령·정순붕·허자가 이로 인해 변을 고하여 큰 화를 만들어냈다."고 하였다. 윤인경 등이 이르러 이기 등 및 원상 권벌과 경회문에 모여 아뢰기를, "국가에 의논할 일이 있으니 함께 의논함이 마땅합니다. 영중추부사 홍언필, 좌찬성 이언적, 좌참찬 정옥형, 우참찬 신광한, 예조 판서 윤개를 모두 부르소서." 하니, 답하기를, "속히 명패를 보내라."하였다.

이때 영의정 윤인경 등이 승전 내관(承傳內官)을 불러 '어좌(御座)는 어디에 설치하느냐? 고 물으니, 내관이 '충순당(忠順堂)에 설치하는데 대왕대비께서는 침방(寢房)의 창 안쪽에서 남향(南向)하여 창문을 열고 발을 내리고 임어하시고, 주상께서는 창밖 약간 서쪽에서 동향하여 임어하십니다.' 하였다. 윤인경 등이 '군신(群臣) 앞에 임하실 때에는 남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니, 권벌이 '고제(古制)에, 태후(太后)는 오른쪽이고 황제는 왼쪽이라 하였는데, 충순당은 동쪽이 되니 이렇게 배설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대왕대비(문정왕후)가 이르기를, "군자를 나오게 하고 소인을 물리치는 것은 국가의 급선무이니 위에서 진실로 명심해야 할 일이나 아래에서도 어진 이를 등용하여 써야 한다. 사람이 사특한가 바른가는 조정이 알 것이니 진실로 사특한 자가 있다면 조정에서도 마땅히 처치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왕대비와 여러 대신들의 말이 오고 간 후에 충재 선생이 이르기를, "소신은 물론을 듣지 못했고 전일 대윤·소윤의 설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는 반드시 말의 근원이 나온 곳을 아실 것이니 분명하게 분별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성종(成宗)께서는 지손(支孫)이신데도 들어가 대통(大統)을 이으셨습니다. 당시 월산대군(月山大君)이 형으로서 당연한 차례인데도 정희왕후(貞熹王后:세조 왕비)께서는 특별히 성종을 세웠습니다. 13세에 즉위하였지만 한 사람도 말하는 이가 없었고, 끝까지 잘 다스렸습니다. 하물며 주상(명종)께서는 인종의 적제(嫡弟)이니 즉위하신 뒤에 어찌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소신은 원상으로 입직(入直)하여 항상 친우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왕자들은 당을 지은 것이 없고 재상은 권세를 잡은 사람이 없으니 내가 비록 부족한 자질로 원상의 자리를 메우고 있으나 안심이 된다.' 하였는데, 어찌 윤임에게 음험 사특한 마음이 있는 줄 알았겠습니까. 윤임에게 만약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죽어도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만, 형벌이 지나치면 인심이 화합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치를 처음 펼 때는 모름지기 인심을 얻어야지 형벌의 위협으로 진정시켜서는 안 되니 위에서는 공명정대하게 마음을 쓰심이 가합니다. 윤임은 왕대비와 아주 가까운 척족이기 때문에 대신들도 참작하여 죄를 정한 것입니다. 윤임에게 비록 간특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찌 무슨 일을 저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조정이 이렇게 아뢰었으니 아뢴 대로 따르심이 가할 뿐 의심하는 생각을 상하의 마음속에 다시 가져서는 안됩니다. 근래 전교를 내리시자 듣고 심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혹시라도 다른 생각을 갖겠습니까. 중종께서 처음 정사를 하실 때 대신이 잘 보도하지 못하여 이과(李顆)가 모반한다고 고하여 노영손(盧永孫:고변자)이 당상관에 올랐습니다. 그 후로 고변자가 많아졌는데 중종께서 그것을 아신 뒤에는 그 연좌인(緣坐人)을 모두 방면하셨고, 이번에 또 그 나머지를 방면하니 온 나라가 모두 감복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모름지기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신 뒤에야 인심이 안정될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또한 "어찌 다시 의심이 있겠습니까. 종친은 당을 만들지 않고 재상은 권력을 오로지 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이러한 때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으며,

다시 아뢰기를, "임금은 어진 재상을 선택하고 재상은 인재를 가린 뒤에야 인심이 화합됩니다. 인심이 화합하지 못하면 천지가 화합하지 못하여 섭리의 도를 상실하게 됩니다."라 하고, "일을 맡기고 성사를 책임 지워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문정왕후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로 윤임(尹任, 1487-1545)을 귀양 보내고, 류관(柳灌, 1484-1545)과 류인숙(柳仁淑, 1485-1545)을 파직시켰다가 귀양을 보냈다.

세 사람 모두 귀양지에 이르기도 전에 사사(賜死)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道山學叢書

十七世紀의 政治社會的 狀況과 晩悔·炭翁의 歷史的 位相

17세기 정치사회적 상황 만회 탄옹 역사적 위상

李 佑 成 (성균관대명예교수)

〈지난호에 이어〉

권득기가 "仁者能愛人能惡人"함으로써 "明愛惡之道"한다고 강조한 이유 중, 다른 하나의 목적은 곧 지적했다.

그들은 治世에서는 "則竊吹以混眞"하고 亂世에서는 "則依爲以諧俗, 俱不失富貴"晩悔集·偕疑" 卷2')"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시·비, 선·악을 분별하지 않아"이미 금자가 될 수 없고, 또한 소민도 될 수 없는 " 鄕原의 악습을 질책하였고, 또 그 위해가 심하여 "오히려 덕을 어지럽히기에 족하니", 의리의 正과 인의예지 四德의 보급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鄕原의 악습을 반드시 "痛懲而改之" 해야 한다고 하였다.

2. "每事皆求是處, 毋落第二義"하는 爲人之道

"每事皆求是處, 毋落第二義" "晩悔業·偕疑"卷1"는 권씨 부자가 의리를 강구하고 도덕실천을 중시한 좌우명이다.

權得己가 보기에 "凡天下之事事物物, 皆有自然一定之中, 離此一步, 則便陷於不善, 故凡口更思其次者皆非也. 如曰 : 此事雖失, 而他事得之, 未爲不可 ; 今日雖非而明日改之, 未爲晩也, 則甚不可. 以此存心, 終無能得龍改之時矣.("晩悔集" 卷2 '贈沈源之文')"라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가 엄격하게 의리와 도덕규범에 따라 일을 행하며, 어떠한 변등도 허용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이 행해야만 완전무결하게 인간의 도를 행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第二義"에 빠져 사람으로 마땅히 가지고 있는 도덕의 본뜻아 변하게 된다고 인식했다.

이것은 그가 의리의 심오함을 이해할 것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도덕실천을 몸소 행함을 중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의 "仁之爲義"에 대한 이해는 "仁之爲義, 非余末學可知, 但能每事尋求是處, 必從十分恰好底, 無落第二義. 每事如此, 又須敬以持久, 終身不廢, 庶可以論仁字之義.(同上書, 卷1)"라 하여, 즉 '仁'의 도덕규범에 따라 실행하고, 아울러 종신토록 지킬 수 있어야만 비로소 仁人이 되며 '仁'의 내용을 진정으로 이해하여 "毋落第二義"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具有十分恰好底事却不做, 去尋第二義, 便是非義.(同上)"를 강조했고, "見義不爲"와 같은 의롭지 못한 행위를 비난했다. 權得己는 '每事皆求是處, 毋落第二義'를 인식하고, 또 사람들에게 "凡事只求是非所在, 不論得失', "使吾之一存心一處事, 粹然一出於正.(同上書, 老4)"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孟子가 일찍이 말한 바 있는 '浩然之氣'를 "不以富貴淫, 貧賤移, 위武屈"(同上)하는 데까지 양성하는 것과 같은데, 역시 "皆求是處 도덕실천으로 실행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權得己는 "每事皆求是處, 毋落第二義"를 爲人之道로 삼아 엄격하게자신에게 요구함은 물론 임종시의 유언 가운데 또한 지식을 교육함에있어 마땅히 이를 좌우명으로 삼게 했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말했다.

권시 또한 부친의 뜻을 계승하여 글을 써서 후대를 교육하여 "天地之大德曰生, 仁者能愛人, 能惡人, 雖刑人殺人, 而愛人之心, 終不可忘, 諸姪諸?諸兒常存此意甚好.([炭翁集] 卷7 [계弟寄書惟及姪?共見])"라 하였다.

3. 義·利之辨을 밝히고 "公天下以爲利"라는君子之義를 제창함.

權得己는 당시 조정의 "不求是非而唯利之爭"의 추세에 대해 "察夫義·利之辨" 하기를 제안하고 아울러 "自私其身"하는 小人之利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公天下以爲利"적인 君子之義를 제창했다.

관리는 일을 처리함에 있어 마땅히 "敬其事"하고 "不可計較祿位之得失([晩悔集·潛疑]卷2)'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의 관리들은 도리어 지위의 보존에만 급급하였다. 그는 관리가 되는 것과 봉록을 받는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居是官得其道, 則愛祿無愧, 若不盡其道, 則祿雖未失, 猶當抛去.(同上)"라 하여 단지 공 없이 봉록을 따는 것을 반대하였던 것이다.

이외에도 고금의 功利之說을 예로 들어 옛 사람은 "所謂功利, 是售其才器以就功名"했으나 지금 사람은 "但知利己, 不知功名國事爲何械(同上書,卷4)"라 하여, 지금 사람이 이와 같은 사적인 이익을 증시하는 풍토가조성된 원인은 바로 "義·利不分"에 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리높여 "今人遇事, 但求利害, 不知有是非, 宜深戒之.(同上)"라고 질책하고 있다.

權得己는 利를 일률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利를 앞세우기 이전에 반드시 是·非, 義·利之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층 더 발전하여군자의 利는 "公天下以爲利,故謂之義"이며,소인의 利의 위해성을 지적해서 말하길 "自利於己, 必妨於人. …不求是非唯利之爭, 則以力相奪而弱肉强食矣.(同上)"라 하고, 군자의 利는 즉 "推自家欲利之心以公於人,則人亦加人而利大矣, 是昕謂義也."라 하고 있다.

이와 같기 때문에 그는"公天下以爲利"의 군자의 義를 제창하고 "自私其身"의 소인의 利를 반대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성인들의 사상

退溪 李滉과 進聖學十圖箚

퇴 계 이 황 진 성 학 십 도 차

〈지난호 이어서〉

무진 육조소(戊辰六條疏)-요지

효는 백 가지 행실의 근원이 되는 것이니, 한 가지 행실이라도 어르러짐이 있으면 순수한 효가 될 수 없는 것이며, 인은 만 가지 선에 으뜸이 되는 것이니, 한 가지 선이라도 갖추지 못하면 인은 온전한 인이 될 수 없는 것이옵니다. '시경'에서는 "시작이 없음은 아니었지만 마침이 있는 이는 드물다."하였으니 오직 성명께옵서 유의하시면 다행이겠습니다.

둘째는, 참소하는 말을 막아서 양궁(兩宮)을 친근하게 하시는 것이옵니다. 부모가 그 아들 사랑하는 것을 자(慈)라 이르고, 아들이 그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효라 이르나이다.

효와 자의 도리는 하늘의 본서에서 나온 것으로 모든 선의 으뜸이니, 그 은혜가 지극히 깊고, 그 윤리가 지극히 무겁고, 그 점이 가장 간절한 것이옵니다. 그러니 지극히 깊고, 그 윤리가 지극히 무겁고, 그 정이 가장 간결한 것이옵니다. 그러니 지극히 깊은 은혜로써, 지극히 무거운 윤리로 말미암아 가장 간절한 정을 행하되 마땅히 극진히 다 못한 것이 없어야겠거늘 제왕의 집안에는 이러한 근심이 더욱 많은데 그 까닭은 무엇입옵니까. 그것은 무른 정(情)과 사세(事勢)가 막히기가 쉽고 참소와 이간이 더욱 많은 까닭이옵니다.

<환관과 여자들>은 그 성격이 보통 대부분 음흉 사악하고 교활하여, 효도와 자애가 무엇이며 예와 의가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섬기는 일만을 소중히 여겨, 서로 세력을 나누어 대립하여 다투고, 이익과 손해가 <이들의> 향배에 따라, 없는 것을 있다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여, 만일 한 번 혹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어 듣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스스로는 볼효에 빠지시게 되고 어버이에 대해서는 자애롭지 못하게 될 것이옵니다.

신이 엎드려 전대의 일을 살피건대, 위로는 자애로운 어버이가 있고 아래로는 어진 자손이 있으면서도 보필을 잘하지 못하는 환관과 참소를 일삼는 궁첩들이 그 사이를 이간하였기 때문에 그 효도를 잘 마치지 못한 자의 예를 어찌 이루 다 헤아릴 수 있겠사옵니까. 오늘날 대궐 안에는 묵은 흉간(凶姦)들과 늙은 요혹(妖惑)이 있어 항상 조정에 깊이 근심하는 바와 같이 아직도 다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궁 사이에 틈을 내게 하는 자는 죄를 얻는다는 것을 또한 명백히 알게 하면, 곧 자연히 음흉 사악함이 어지럽게 혼입할 걱정이 없고 효도를 궐함이 없을 것이옵니다.

셋째는, 성학(聖學)을 돈독히 하는 것으로써 정치의 근본을 이룩하시는 것이옵니다. 신은 듣자옵건대, 제왕의 학문에서 심법(心法)의 요점은 대순(大舜)이 우(禹)에게 명함에 그 연원이 있는 것이니, 그 말에 이르기를, "인심(人心)은 위태하고 도심(道心)은 오직 미묘하니 오직 정하게 하고 오직 전일하게 하여 진실로 그 중(中)을 잡으라." 하였사오니, 무릇 천하를 물려주고 받음은 그로 하여금 천하를 편안하게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온지라, 어찌 학문하여 덕을 이루는 것으로써 정치하는 데 있어서의 큰 근본으로 삼는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정하고 전일하게 하여 그 중을 잡는 것[精一執中]은 학문을 하는 큰 법이오니, 큰 법으로써 큰 근본을 세우면 천하의 정치가 모두 여기에서부터 나올 것이옵니다.

공씨(孔氏)에 이르러 대학의 격물치지(格物致知) 성의정심(誠意正心)과 중용(中庸)의 명선(明善)과 성신(誠身)이 이것이요, 유학자들이 계속 나와 주씨(朱氏)에 이르러 그 학설이 크게 밝혀졌으니 대학과 중용의 장구(章句)와 혹문(或問)이 이것이옵니다.

(다음호에 계속)